

주요 그룹 총수, ‘APEC 지원·연말 인사·글로벌 경영’ 분주

삼성 이재용 회장, 27일 취임 3주년 SK 최대원 회장, 中 현장경영 나서
현대차 정기인사 조기 단행 전망
LG 사장단 회의… 중장기 전략 논의

삼성, SK,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연말 인사와 내년도 사업 계획 구체화를 위한 행보에 분주한 모습이다. 연말 정기 인사와 이달 말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담 지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과의 추가 관세 협상, 3차 상법 개정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당장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등 숨가쁜 국내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받은 주요 기업인으로는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대원 SK그룹 회장, 행정안전위원회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가 부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



최대원 회장(왼쪽)은 10일 베이징에서 런훙빈 CCPIT(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의 현황을 돌아보고, 기업 간 교류 확대 등 민간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뉴시스

장 등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국감 증인 출석이 없지만 그룹 행사가 줄줄이 이어진다. 고(故) 이견희 선대회장 5주기(10월 25일), 고 이병철 창업회장 38주기(11월 19일) 등 그룹차원의 추모 행사를 앞두고 있다. 27일에는 회장 취임 3주년도 맞는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최대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서밋)’을 보름 남짓 앞두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한중 비즈니스 협력 확대를 위해 10~12일 중국을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허리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런훙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살폈다. 또 기업 교류 확대 등 민간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사업전략 대응을 위한 주요 그룹의 연말 정기 인사도 관심사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 해소 후 온전한 경영복귀를 알리는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사업 지원TF 축소 가능성과 그룹 조직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5000억 달러(700조원)에 달하는 인공지능(AI) 관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기로 한 만큼 반도체 관련 조직 정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통상 12월 첫째 주에 실시해 온 정기 사장단 인사를 11월 중순으로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연휴 직전 최대원 회장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만나 메모리반도체 공급의 향서와 한국서남권 AI 데이터센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매년 크리스마스 전후에 맞춰 임원인

사를 진행한 현대차그룹은 올해 연말 인사는 예년보다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대차는 미국에서 ‘나홀로 25%’ 관세 폭탄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중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인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를 현대차대표이사(CEO)로 선임하는 사장단 인사를 실시한 바 있다.

추석 연휴 직전 사장단회의를 열고 중장기 경영 전략을 논의한 LG그룹의 정기 인사도 예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최고경영진과 각사의 AX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디지털책임자(CDO)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사장단 회의에서 구광모 회장은 “중국 경쟁사들은 우리보다 자본, 인력에서 3배, 4배 이상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사업의 선택과 집중, 구조적 수익체질 개선 등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배터리, 흑연 등 원료 확보 구슬땀… ‘脫중국’ 속도낸다

中 의존도 낮추고 원료 공급망 다변화
광산개발부터 생산까지 수직계열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의 공급망 통제 강화에 대응해 해외 자원개발과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희토류 수출 제한 등으로 글로벌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탈(脫)중국’ 전략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배터리 소재인 흑연 음극재의 탈(脫)중국화를 본격화하며 원료 확보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은 전 세계 공급량의 7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이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광산 개발부터 소재 생산까지 배터리 관련 소재 분야의 수직 계열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탄자니아 모로고로주 울랑가 지역의 마헨게(Mahenge) 광산에서 흑연 광산 개발을 착수했다. 마헨게 광산은 매장량 약 600만톤(t)에 달하는 세계 2위급 천연흑연 광산이다. 호주 자원개발기업 블랙록 마이닝(Black Rock Mining)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이 광산 개발에 포스코그룹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광산 개발 단계부터 원료 공급망을 직접 확보함으로써 그룹 차원의 이차전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광물자원 안보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제철소 공정에서 발

생하는 코크스를 가공해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지에서 천연흑연 원광을 확보하고 중간소재인 구형흑연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는 호주 흑연업체 시라(Syrah)와 공급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흑연 수급망을 마련했다. 이러한 탈중국 움직임은 핵심 광물 중 하나인 니켈 확보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제련소에 약 7000억원 규모의 1단계 투자를 완료하고, 2단계 IGIP(인터내셔널 그린 산업단지) 프로젝트에도 추가 자금을 투입해 제련소 건설과 양극재 생산라인 통합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해외 자원개발 지원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원료 내재화를 강화하는 흐름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외 자원개발은 대부분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만큼 다양한 위험요인이 뒤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데다, 정세 불안 지역에서는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며 “해외 개발은 필수지만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 외부 전경

제네시스 ‘디자인캘리포니아’ 개소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디자인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제네시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브랜드 전용 디자인 센터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를 공식 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는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엘 세군도에 위치한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는 차량을 비롯해 전시장, 사운드, 로고, 인터페이스 등 제네시스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최첨단 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연면적은 7471㎡(약 2260평) 규모다.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는 양산 및 선행 차량 프로젝트뿐 아니라 ▲미래항공 모빌리티(AAM) ▲로보틱스 ▲최신 CMF(색상·소재·마감) 트렌드 연구 ▲제품 스토리텔링 지원을 위한 가상 이미지 및 영상 제작 등 폭넓은 창의적 작업을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디자인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된다.

제네시스는 브랜드 출범 10주년을 맞아 개소한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서울의 제네시스 디자인 센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제네시스 디자인 스튜디오와 24시간 소통하는 유기적인 글로벌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디자인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혁신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17일 ‘ADEX 2025’ 개막… AI 기반 방산 신기술 소개

한화에어로, LIG넥스원 등 참여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가 이번 주 막을 올린다. 올해 전시회의 핵심 키워드는 ‘AI·무인화’로 국내 방산업계는 인공지능(AI)을 전장에 접목한 차세대 기술 전략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의 최대 화두는 ‘AI 전장’이다. AI를 무기체계의 두뇌로 삼아 유·무인 전투체계, 방공망, 정찰체계 등을 통합하는 ‘AI 중심 방산’이 차세대 기술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AI를 기반으로 한 복합전투체계와 무인화 기술을 앞다퉈 선보이며 기술 중심 방산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NACS)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NACS는 유인 전투기(KF-21)와 무인 전투기를 실시간 네트워킹으로 연결해 전장 정보를 AI가 분석하고 작전을 지휘하는 시스템이다. AI가 전투기 편대를 통합 지휘해 작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KAI는 이미 ‘AI 파일럿(조종 AI)’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내외 전문 AI 기업과도 협력해 실시간 전술 판단·의사결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KAI는 이를 통해 차세대 한국형 공중전투 플랫폼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공중 무인체계를 통합한 ‘AI 전장관리 솔루션’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육상 전투차량, 무인 정찰기, 자율주행 차량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AI·센서 기반으로 연결해 전장을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올해 MADEX 2025에서도 AI 기반 통합지휘체계와 지능형 결심지원 시스템 등을 공개한바 있어 ‘무기 제조사’ 이미지가 아닌 데이터 중심의 전장을 관리하는 AI 플랫폼 기업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LIG넥스원은 다층 방공체계(L-SA MⅡ, 천궁Ⅱ, 신궁)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표적 식별·추적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 방공 시스템에 AI 알고

리즘을 결합해 다수의 위협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요격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스마트 방공체계’로 발전시켰다. LIG넥스원이 미사일 체계의 AI화를 주도하면서 한국형 방공시스템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산업계에서는 AI·무인화 전환이 K-방산 수출의 지속성을 좌우할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간 국내 방산은 하드웨어 중심의 조립·생산 구조에 머물렀지만, AI와 복합전투체계 기술이 자리 잡으면 고부가가치 기술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결해야 될 과제 역시 존재한다. AI 기반 전투체계 구축에는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과 방대한 국방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엔 자금·정보 접근 측면에서 한계가 크다.

/이승용 기자 lsy2665@